

민족통일, 오직 복음으로만(행19:21-22)

오늘은 본 교단이 지키는 통일주일이다. 2023년은 정전협정 70주년과 2025년은 분단 80년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언제나 가능할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소원은 복음통일이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온전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오직 복음으로만 참된 통일이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달려갈 쫓대가 있는 분명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삶을 살은 사람이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중심은 에베소였다.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 많은 고초를 당했던 곳이다. 바울은 에베소에 대략 3년을 머물렀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세례를 베풀어 교인들의 눈을 뜨게 했고 두란노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이 세력을 얻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에베소의 고린도 풍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또 다른 비전이 생긴다.

그 비전은 바로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대한 비전인 것이다.

1. 바울의 로마를 향한 계획이다. (행19:21)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나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전도계획은 그토록 가길 원하였고 작정한 그곳은 로마였다. ‘작정하였다’는 말의 원문에는 ‘영 안에서’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엔 토 프뉴마티’인데 프뉴마는 인간의 영을 말할 수도 있고 성령을 말할 수도 있다. 나중에 밀레도 설교에서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행 20:22) 하였는데 이전 개역성경에서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라고 번역하였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인간의 자율이나 신의 타율도 아닌 둘이 일치하여 이루어지는 신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인간의 결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바울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매여 북한선교라는 비전을 품어야 한다. 북한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 사역을 해야 한다. 북한선교가 그런 것이다.

북한선교 사역은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사역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고 여러 사고들이 겹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서신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그리스도요 이루실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빌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②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소원은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도구이다. (빌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어떠한 소동도 바울의 소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계획을 막을 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북한선교라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 성결교회가 성령으로 매임받아 북한선교라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2. 로마를 향한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다. (행19:21)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라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불타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바울이 여러곳을 거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한다.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향한 당찬 복음의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오래전에 성지 이스라엘을 저희 부부가 순례한적이 있다.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 압송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가이사라 해변에서 지중해 바다를 바라볼 때에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럽여행을 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할 것이다. 왜 로마를 보아야 합니까? 로마의 고대유적 때문이다.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을 보고, 베드로성당도 보게 될 것이다.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유명한 트레비 분수도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경꺼리로 삼는 관광에 불과하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이었고, 영혼들이었고, 모든 민족이었고, 땅 끝이었다. 분명한 소명과 사명. 사도행전9: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한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하겠고, 땅 끝까지 가야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로마로 가겠다는 열망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사도행전 27-28장이 전하는 바울의 로마행은 고난의 연속이다.** 항해 도중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되고, 멜리테라는 작은 섬에 구출을 받았지만 뱀에 물렸다.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갔지만 그 후 석방되었다가 다시 두 번째 감옥에 있다가 참수형을 당했다. 바울의 로마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었다. 그래도 바울은 로마를 보기를 원했고, 결국에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보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볼 수 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선교사 스탠리 존스의 말대로 **“하나님이 종지부(period)를 찍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쉼표(comma)를 찍지 않는다”**고 하였다. 놀라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다. 우리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 복음전도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이다. 디모데후서4:2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한다. 이 말씀의 현대어 번역에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라고 한다. 복음을 전할 ‘시즌’이 아니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다.

복음전파에는 따로 ‘시즌’이 있을 수 없다. 사도행전은 진행형이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와 행적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의 역사가 복음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그 복음에 대한 열망이 간절한 사람이 복음의 열매를 얻는다. 복음은 말이나, 지식이나, 전략이 필요하지만 복음에 대한 불붙는 ‘열정’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질 수 있다. 모두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북한선교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저 북한에 대한 복음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그냥 단순히 영혼구원의 복음일 뿐만 아니다.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다. 복음은 내면에서 시작하지만 내면에서 끝나지 않는다. 내면에서 시작해서 외면

으로 흘러들어가 개인에게서 시작하고 심령 속에 시작하지만 밖으로 흘러나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꾸고 결국 세상의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집속시키는 것이다. 북한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역사가 토인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문명의 몰락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과거 그리스, 오스만 제국 등 역사의 전례를 연구하다 문명의 생성, 발전, 쇠퇴의 원리를 깨닫게 됐다며 그 결실로 ‘도전과 응전’이란 개념을 창안하게 되었다. 문명의 흥망성쇠가 자연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 등에서 비롯한 외부적 도전에 어느 정도로 응전하느냐에 따라 성장 혹은 발육정지 등의 여러 양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 독창적 담론은 그 뒤 역사학은 물론이고 정치·경제사 등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역사에 대한 탐구의 토대가 된 역사가의 기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역사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호기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호기심이 한 방향으로 발동되지 않는다면 목표 없는 지식의 추구 외에는 더 건질 게 없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기본적인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어떻게 거기에서 생겼는가?’라는 표현이 될 것이다. 아득히 먼 과거의 사건이라 해도 그것은 반사가 예민한 역사 의식에 응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도전은 우리 삶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입니다. 시련과 고통이란 것도 하나의 인식이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험이 있을 뿐인데 그것을 겪는 인간이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버틸만하다고 느끼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과 교훈을 찾는다. 이를 응전이라 한다.

여러분, 우리민족이 복음통일로 가는 길에는 토인비가 말하는 것과 같은 험치고 넘어야 할 험난한 도전들이 많다. 그 험난한 도전적 과제들에 우리는 적절히 응전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해내야 한다. 거기에 복음통일의 꿈을 이루고 못 이루고가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도 복음통일로 가는 도상에서 직면하는 도전들을 적절히 대응해 극복하고 새로운 운명, 새로운 역사, 통일 강국의 대망을 현실로 이루어내야 한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나라 주변의 여러가지 도전에 대한 대응과 응전의 노력을 한층 더 밀도 있게 기울여 나가야 할 시기이다. 도전적인 주변 분위기에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한국의 꿈을 이루어내야 하는 당위성을 실천해나가야 한다.

특히 토인비는 문명과 역사 발전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소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한국 성결교회가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본 교단 북한선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의하면 해방전 북한성결교회는 82개 교회이다. 통일 후 북한성결교회 재건을 맡을 한국성결교회와 결연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선교전략지역을 맡을 교회도 연결하고자 한다. 탈북민으로 사역자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통일 되었을 때 그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선교 위원회에서는 7,000명의 개인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기도회원이며 1구좌 1만원 회원이다. 7,000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더욱 크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 영적 통일준비가 필요하다.

교회는 무엇이나? 하나님 나라의 모판이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케리는 한 목회자연합회의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라고 외쳤다. 그는 위대한 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잃어버린 반쪽인 북한동포를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기 바란다.

복음전도는 영혼구원, 세상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충성했던 분이셨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생활은 정말 뜨거우셨다.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붙잡으려 다닐 정도였다. 영혼구원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절대순종. 공산주의자들은 당의 명령이라면 생명도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들보다 더욱 확고한 신념과,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세상 끝까지 가는 충성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모태신앙이요,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연수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크로노스의 세상의 세월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다운 삶을 얼마나 했느냐는 질문”이다. 우리가 “카이로스”의 신앙적 세월을 얼마나 보냈느냐는 말씀이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세월 “몇 시간, 며칠, 몇 개월, 몇 년”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복음전도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로마가 그런 곳이었다. 미지근한 것은 시험 들기에 딱 적당한 상태이다. 신앙생활은 끌려 다녀서도 안 된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된다. 죽지 못해 해서도 안 된다. 바울처럼 열정으로 사명 가지고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원하는 통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남북한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지 말고, 신앙의 자유, 언론과 표현과 거주 자유가 주어지는 가운데 통일되어야 한다.

2) 남북한의 통일은 평화(복음)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이 아무리 민족의 소원이요 대과제라고 하지만, 반드시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평화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한다. 한쪽을 죽이면서 얻어진 통일이라면 그런 통일은 얼마 못갈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여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악하면 목적을 이룬 것만 못할 수 있다. 참된 평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복음통일이어야 한다.

3) 남북한의 통일은 기도 속에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중에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은총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중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선교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다. 에스겔 37:15-17을 보면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다. 예브라임의 막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남쪽은 유다의 막대기였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종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셨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오늘은 통일주일이다. 오직 복음으로만 진정한 통일은 가능하다.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저 북한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민족이 하나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